

한문성경 『대표본』(1854)의 동양 고전 읽기 — 잠언의 경우 —

이환진*

1. 1882년은 만주 심양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처음 나온 해이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이다. 펴낸 곳은 당시 봉천이라고 불렀던 심양이지만 번역을 한 곳은 영구(營口)이다. 번역을 주도한 존 맥킨타이어 목사가 영구에서 선교 사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압록강 부근 의주 출신 청년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선생과 함께 작업한 것이다. 먼저 조선인 청년들이 한문 신약 『대표본』(1852)을 조선말로 옮겼다. 그러면 존 맥킨타이어 목사는1) 희랍어 성경으로 번역문을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 작업을 했다. 1887년에는 신약 전체를 번역하여 심양에서 『예수성교전서』를 펴낸다.2) 이렇게 첫 한글 성경은 1800년대 중반에 온 한문 신약 『대표본』(代表本, 1852)을 번역한 것이다.3)

2. 『대표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경서체(經書體) 문장으로 유명한 성경이다.4) 제임스 렉(James Legge)을 위시한 영국인 선교사들은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맹자』의 문체를 표준으로 삼고 번역하고자 했다. 『맹자』의 문체가 여러 고전 작품 가운데에서도 표준으로 삼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 New York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peninim@hotmail.com.

1) 존 맥킨타이어(John Macintyre) 목사의 한글 연구에 대해서는 전무용,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1)”, 『창조문예』 131 (2007. 12.), 93-105; 전무용,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2)”, 『창조문예』 132 (2008. 1.), 161-169가 있다.

2) 이환진,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14-17.

3)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주시오』, 민영진박사 회갑기념 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4) 이환진,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36. 필자는 이 성경을 “한문 타르굼”(Old Chinese Targum)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문 타르굼”(Old Chinese Targu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25-44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아람어 번역인 타르굼과 한문성경 『대표본』의 번역 기법과의 심도 있는 비교연구가 더 필요하다.

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한문은 왕타오(王韜)라는 뛰어난 중국인 학자의 솜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대표본』의 번역자이기도 했던 미드허스트(Walter H. Medhurst)에 따르면, 특히 잠언과 욕기는 왕타오(王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⁶⁾

3. 사실 19세기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이 『대표본』을 문리체(文理體)로 번역한 것은 단지 청나라 학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수백 개에 달하던 청나라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펴낸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정신에서 나온 첫 성경이 『남경관화역』(신약, 1857)이다. 그리고 1878년에 나온 『북경관화역』이다.⁷⁾ 북경과 남경은 당시 청나라의 남북에 있는 중심지였다. 그렇기에 이 두 입말체 성경의 출현은 근대 중국 그리스도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그런데 『대표본』은 당시 청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대상으로 삼고자 번역한 성경이다.⁸⁾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이들 나라 가운데에는 일본과 한국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 속하지 않았던 큐우슈우도 여기에 들어간다. 동아시아에서 『대표본』은 어머니 성경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1938) 성경 속의 각 책 이름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희년” 또는 “십자가의 도”와 같은 교회 용어가 바로 『대표본』(1854)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현재 중국 개신교회의 『화합본』(和合本, 1919)이나⁹⁾ 가톨릭교회의 『사고성경』(思高聖經, 1968) 그리고 일본의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신공동역』(新共同譯, 1987)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대만 개신교회의 『현대중문성경수정판』(1995)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약 5-6천만 동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한문성경 『대표본』은 어머니 성경이다. 이 성경에서 비롯된 용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대표본』의 특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한문성경 속에는 사서오

5) 游斌, “王韜, 中文圣经翻譯及其解釋学策略”, 『圣经文学研究』 第一辑 (2007年), 356-359.

6) 앞의 글 357쪽.

7)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의 「북경관화역 구약」 (1875) - 시편 1편을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76 (2013), 6-37.

8) 黄イエレム, “「上帝」か「神」か. 19世紀プロテスタント聖書の漢譯過程にみる用語論争の歴史的考察”, 立教大學大学院. 修士論文. 2013年度, 2-3.

9) 쉬슈양슈양(許双双), “중문 화합본(1919)의 번역 특징”, 석사학위 논문(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을 참조하라.

경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의 고전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이 성경 속에는 아시아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가 한데 녹아 있다. 이런 까닭에 『대표본』은 중국 고전과 성경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성경 읽기는 이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

사서 오경 ⇨ 대표본 ⇐ 마소라 본문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대로 『대표본』 속에는 사서 오경을 위시한 한자 문화권의 고전이 들어 있다. 물론 『대표본』도 성경이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희랍어 성경을 완전히 해체시킨 동아시아인들의 문학이다. 원문 성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문 고유의 특성을 더 많이 품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

6. 이런 까닭에 한문성경 『대표본』은 동아시아의 문화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단순히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어 아시아 문화와 서양 문화의 소통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아시아 문화란 동아시아 문화를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 ⇐ 대표본 ⇨ 동아시아 성경

그리스도교의 경전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어 두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문학 작품으로 『대표본』을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문화가 나누는 대화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학자 선귀웨이(沈國威)는 그의 책 『근대 중일 어휘교류사』에서 근대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언어가 일본으로 유입된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정황은 당시 조선에도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이러한 정황의 중심에 서 있는 성경이 바로 『대표본』이다.

7.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표본』의 잠언에는 두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다. 『대표본』의 잠언 속에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한자문화권의 고전

10) 선귀웨이, 『근대 중일 어휘교류사』, 이한섭 외 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195-204.

11) 필자가 조사한 대로는 레위기의 성(聖) 법전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많은 용어가 한 문성서에서 일본어 성서와 한글성서에 들어와 있다. 이환진, 『레위기 2』,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93-306.

이 함께 등장한다. 『시경』과 『맹자』와 『중용』과 같은 아시아의 고전 문학을 말한다. 물론 『대표본』의 본문 결정을 할 때 근대 영문학을 대표하는 제임스왕역(King James Version, 1611)을¹²⁾ 많이 참조하였으므로 서양의 대표적인 성경도 이 속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8. 먼저 『중용』이 들어 있는 잠언이다. 『대표본』은 잠언 4장과 7장에서 『중용』을 인용한다. 먼저 잠언 4장을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으로 읽어보자.

내 아들이야
 내가 이르는 말을 잘 듣거라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거라
 네 눈에서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키라 네 마음 한 가운데에-
 아, 그것은 생명이다
 찾는 이들에게 말이다
 몸을 치유하리라
 (잠언 4:20-22, 마소라 본문)¹³⁾

이번에는 『대표본』의 잠언이다.

애야 들어야 한다
 내 말을-
 귀 기울이고 깨달으라
 언제나 눈 앞에 두라
 잘 간직하라 깊숙이
 애지중지하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하라 [拳拳服膺]
 그러면 생명을 얻으리니
 평강을 누릴 것이니¹⁴⁾
 (잠언 4:20-22, 대표본)

여기서 “가슴 속 깊이 잘 간직하고 애지중지하라”는 말이 바로 “권권복

12) 이 성경에 대한 서평 논문으로 이환진, “창문을 연 번역(Translation That Opens the Window)”,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179-205가 있다.

13) 필자의 번역, 이하 번역자나 번역본이 제시되지 않는 한국어 번역 본문은 필자의 번역이다.

14) 爾小子, 宜聽我言, 傾耳以聆. 當在目前, 永藏衷曲. 拳拳服膺, 則獲生命, 享平康. 金時俊 譯解. 『大學·中庸』(서울: 惠園出版社, 1988), 152-153과 이동환 역해, 『중용』(서울: 현암사, 2008), 102 참조.

응”(拳拳服膺)이다. 앞의 마소라 본문에 나오는 “이것을 지키라. 네 마음 한 가운데에”를¹⁵⁾ 옮긴 말이다. “지키라 그것들을 네 마음속에-”라고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¹⁶⁾ 이 표현의 대응어인 “권권복응”(拳拳服膺)은 『중용』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께서 이르셨다
안회의 사람 됨됨이는 중용을 택한 때문이다
선한 것 하나 얻으면
애지중지하며 가슴 속 깊이 품고 잃지 않은 까닭이다¹⁷⁾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공자는 매우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의 사람 됨됨이가 좋은 까닭은 그가 중용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용”(中庸)이란 책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재미난 점은 잠언 또한 “마음 한 가운데에 잘 간직하라”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4:27)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¹⁸⁾ 이번에는 잠언 7장을 읽어보겠다.

그들을 동여매라 네 손가락에
그들을 쓰라 네 마음 판에
말하라 지혜에게 ‘그대는 내 누이야!’
‘가까운 사이야!’ 이렇게 부르라 통찰에게-¹⁹⁾
(잠언 7:3-4)

『대표본』은 이렇게 읽는다.

내 잠언을 손에 매라

15) שְׁמַרְמָם בְּתוֹךְ לְבָבְךָ

16) 아니면 제임스왕역(KJV)의 “keep them in midst of thine heart”를 읽고 이렇게 옮겼을 수도 있다. 이 영어 성경은 아시아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표준으로 삼았던 성경이기 때문이다. 『대표본』의 책임 번역가였던 제임스 렉(James Legge)은 그의 책 『중국인들의 관념 - 신과 영에 대하여』(The Notions of the Chinese Concerning God and Spirits, Hongkong: Hongkong Register, 1852)에서 이 한문성경을 번역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제임스왕역을 자주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17) 子曰，回之爲人也，擇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

18) 이 부분을 “좌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 치우치지 말라 악을 보면 멀리하라”라는 뜻으로 “물편어좌 물편어우 견악즉원지”(勿偏於左，勿偏於右，見惡則遠之)라고 읽는다.

19) שְׁמַרְמָם עַל-אַצְבָּעֶיךָ כְּתָבָם עַל-לִיבְךָ: אָמַר לְחַכְמָה אֲחֹתִי אֵת וּמַדָּע לְבִינָה תִקְרָא

마음에 새기라
지혜와 충명을
애지중지하며 가슴 속 깊이 간직하라 [拳拳服膺]
누이들을 사랑하듯
처가 식구들을 품듯²⁰⁾

마소라 본문에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 잠언’이라고 실명사화하여 읽는다. 손에 매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움긴 듯하다. 마소라 본문은 대화 형식으로 ‘너는 내 누이야!’나 ‘나와 아는 사이야!’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누이들을 사랑하듯 처가 식구들을 품듯’으로 읽었다. ‘처럼’[如]이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앞에 위치시켜 운율을 맞추어 옮겼다. 그런데 “애지중지하여 가슴 속 깊이 간직하라”는 표현은 집어넣은 부분이다. 앞 4장처럼 『맹자』의 “권권복옹”(拳拳服膺)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한 것인데, 다른 점은 4장은 히브리어 본문을 비슷하게 읽은 것이지만 여기 7장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이 표현을 집어넣어 읽은 것이다. ‘한문 타르굼’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대표본』은 고전을 성경 속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읽는 이들을 아시아의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두 문화가 전혀 상충되지 않고 잘 어울린다는 점을 암암리에 이야기한다. 이러한 모습은 잠언 23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혜를 마땅히 구하라
진리를 애지중지하여 가슴에 깊이 품으라²¹⁾
(잠언 23:23)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이렇다.

진리를 사라 팔지 말라
지해도 수련도 통찰도²²⁾

『대표본』은 마소라 본문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순서가 앞뒤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혜’는 남겨두고 ‘수련’과 ‘통찰’이라는 말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그러니까 『대표본』에게 ‘수련’이나 ‘통찰’은 바로 ‘지혜’의 또 다른 이름일

20) 以我箴言，繫之於手，銘之於心，智慧聰明，拳拳服膺，若愛姊妹，若懷戚屬

21) 宜求智慧，服膺真理

22) אֱמֶת קָנָה וְאֵל־תִּמְכֹּר חִכְמָה וּמוֹסֵר וּבִינָה

뿐이다. 그래서 빼버린 것이다. 대신 ‘마땅히 구하라’라는 동사로 바꾸어 읽었다. 이렇게 ‘수련’이나 ‘통찰’과 같은 명사는 빼고 ‘마땅히 구하라’[宜求]라는 동사로 바꾸어 읽은 것은 『대표본』의 과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맹자』의 “권권복옹”(拳拳服膺) 가운데 ‘복옹’(服膺)을 사용하여 ‘진리’와 연결시킨 점이다. 이 말은 ‘진실’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말이다. 실제로 잠언 3:3에서는 “진실무망”(眞實無妄)이라고 읽기도 한다. 같은 말을 약간 달리 읽은 것이다. “(사랑과) 진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라”를 “진실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읽은 것이지만 ‘진실무망’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²³⁾ 그런데 ‘진실’(眞實) 대신 ‘진리’(眞理)로 읽은 것은 의도적이다. ‘이’(理)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본』은 여기서 다시 『맹자』와 연결된다. 이러한 모습은 잠언 7:1의 모습과 똑같다. “내 말을 삼가 지키라. 내 명을 가슴에 고이 품으라”²⁴⁾ 표현이다. “네 곁에 잘 간직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복옹’(服膺)으로 곧 “가슴에 고이 품으라”로 읽은 것이다. 이 ‘복옹’은 이어서 나오는 부분에 ‘권권복옹’(7:4)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련한 문학 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9. 『맹자』를 인용한 부분이 또 있다. 잠언 27장이다.

암양은

젖을 내어 그대의 남녀 종의 음식으로 이바지하니

너그럽고 여유가 있구나 [綽然有餘]²⁵⁾

(잠언 27:27)

염소의 젖은

그대의 밥으로 그대 집안의 밥으로 충분하다

또 그대 여종들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²⁶⁾

위의 인용은 『대표본』이고 아래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옮긴 것이다. 『대표본』의 “너그럽고 여유가 있구나”[綽然有餘]가 바로 『맹자』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어떤 사람이 벼슬을 그만 두고 떠나는 모습을 두고 말이 많았다. 공도자(公都子)라는 맹자의 제자가 맹자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는 이렇

23) 민중서림 1425.

24) 宜恪守我言, 服膺我命

25) 牝羊出乳, 供爾僕婢之食, 綽然有餘

26) וְדִי חֶלֶב עֵינִים לְלִחְמָהּ לְלֶחֶם בֵּיתָהּ וְיָיִם לְנַעֲרֹתָיָהּ

게 말한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벼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다할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또 간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의 간언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 직책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금 내게는 맡은 벼슬도 없고 간언할 책임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물러나고 나아가는 일에 있어 어찌 넉넉한 여유가 없겠는가?”²⁷⁾

이 말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어찌 넉넉한 여유가 없겠는가?”²⁸⁾ 바로 『맹자』가 인용한 부분이다. 사실 두 문맥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맹자』(公孫丑下)에 나오는 이 부분은 관직에 오른 자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맹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잠언(27장)은 유목민의 지혜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도록 풀어서 읽어본다.

그대 가축 떼의 얼굴을 일일이 익혀야 합니다
 가축에게 마음을 써야하지요
 재산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풀이 사라지면 새싹이 보이는 법
 이 산 저 산에 널려 있는 풀 또한 모아들일 수 있지요²⁹⁾
 양털은 옷감이죠
 들녘의 값을 올려주는 건 염소 떼지요
 충분해요
 그대가 염소 젖을 양식으로 삼는 것 말이죠
 그대 집안 사람들 양식을 책임지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어요
 그대 여종들에게는요,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잠언 27:23-27)

27) 『맹자』公孫丑下. 김동휘 역해, 『맹자』(서울: (주)신원문화사, 2006), 121의 본문을 약간 고쳐 인용한다.

28) 豈不綽綽然有餘裕哉

29)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다. 2011년에 나온 영어성경 CEB를 따라 읽은 것이다. 유대인의 번역인 코렌(Koren)은 “풀의 싹이 돌아나면 풀밭이 드러난다. 산마다 풀을 모아들일 수 있다”(When the grass sprouts forth, and the young grass appears, and the herbs on the mountains are gathered in)로 읽는다. 유진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메시지』 성경은 “소출을 모아들이고 추수를 광에 쌓아두고는 (양털로 스웨터를 짤 수 있다...)”로 뒷부분과 연결하여 간결하게 읽기도 한다.

맹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 “어찌 나에게 여유가 없겠는가?”[豈不綽綽然有餘裕哉]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무척 정치적이면서도 임금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맹자의 호연지기를 다시 한 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말 가운데에서 “여유로움이 있다”[綽然有餘]는 말이 이렇게 잠언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잠언의 경우 그 문맥은 반유목민의 넉넉한 생활 모습이다. 먼저 기르고 있는 가축의 얼굴을 일일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 가면 잘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가축 떼로 등장하는 재산을 그렇게 잘 관리해야 하지만 그 재산이라는 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들판에 돌아나는 풀과 산마다 눈에 띄는 약초(?) 또한 모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모아들인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사실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아마도 잠언의 현자는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마련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염소한테서 나는 것이 “여종들에게는 바로 생명”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가축을 키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의 먹거리가 바로 염소젖이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종들 그 가운데에서도 여자이기에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여종들에게는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음식과 나눔이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대표본』은 이것을 ‘여유로움’으로 읽는다. 풍요로움을 나눔으로 읽는 잠언의 현자들에게 여유로움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셈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다. ‘오래가는 재산이란 없다. 나눠야 한다. 그런데 그 나눔의 태도가 바로 너그러움이다. 그리고 여유로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맹자』의 날카로운 정치의식이 숨어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본』이다.

10. 이번에는 『시경』이다. 이 책은 『대표본』의 잠언이 무척 좋아하는 책이다. 여기저기에 『시경』의 구절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잠언 9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는다
그녀는 다듬는다 그녀의 여러 기둥을, 일곱!
그녀는 잡는다 그녀의 희생 예물을
그녀는 쉬는다 그녀의 포도주를
아!

그녀는 펼친다 그녀의 밥상을-
 그리고 그녀는 보낸다 그녀의 여종들을
 그리고 그녀는 외친다 마을 높은 곳마다 거기서-30)
 (잠언 9:1-3)

‘그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그녀’는 지혜이다. 지혜는 일곱 기둥 다듬어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술을 빚고 잔칫상을 펼치고 심부름을 보내고 하다가 답답하여 그녀 스스로 마을 높은 곳마다 뛰어다니며 소리친다. “열려 있는 이는 누구나 오시라! 함께 밥을 드시라!” 예수님의 천국 잔치 초대가 생각나는 부분이다. 여기서 잔칫상을 차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창조를 넘어서 지혜의 집짓기와 잔칫상 벌이기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³¹⁾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아, 그녀가 자기 잔칫상을 차린다”나 “아, 그녀가 그녀의 잔칫상을 펼친다” 또는 “아, 그녀가 자기 파티 테이블을 마련한다”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대표본』은 이것을 “사연설석”(肆筵設席)이라고 읽는다. “명석을 깔고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이가 집을 세운다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가축을 잡고 술을 빚는다
 명석을 깔고 자리를 마련한다 [肆筵設席]
 종을 보내어 손님을 부른다
 지혜로운 이 높은 곳에 올라가 외친다³²⁾

잠언은 집 짓고 잔치를 벌이는 광경이다. 그런데 『시경』의 한 구절을 따와 음식을 수북이 늘어놓고 잔칫상을 차린 모습을 더욱 풍성하게 묘사한다. 『시경』에서 빌려온 이 표현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것일까?

뺨뺨이 솟는 길가의 갈대를 소나 양도 밟지 않으면
 더부룩이 자라서 잎새 무성하리라
 친한 형제들이 멀리 헤어지지 않고 함께 있으면
 자리 깔고 안석 받쳐 드리며 잔치하리

30) חֲכָמוֹת בְּנֵתָהּ בֵּיתָהּ הִצָּבָה עֲמוּדֶיהָ שִׁבְעָה: טִבְחָהּ טִבְחָהּ מִסְכָּה יִיגָה אֵף עֲרֻכָּהּ שְׁלֹחָנָהּ:

שְׁלֹחָה נְעֻרֶיהָ תִּקְרָא עַל-גַּפִּי מִרְמֵי קָרָת:

31) 이환진, “나 야훼는...”, 『샘』 39 (2014. 9.), 75-82.

32) 智者建室，彫其七柱，宰畜釀酒，肆筵設席，遣婢速客，智者登高而呼

자리를 겹으로 깔고 안석 받쳐 드리며 시중드네
 술잔 주고받은 뒤, 다시 술잔 씻어 술 권하고 술잔 받네
 삶은 고기 조린 고기 올리고, 구운 고기 구운 간도 있으며
 맛있는 머리고기도 있고, 노래하고 북도 치네³³⁾
 (詩經 大雅 “行葦”)

‘길가의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 “행위”(行葦)의 앞부분이다. 제사를 드린 뒤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는 광경이다. 여기서 “자리를 겹으로 깔고 안석 받쳐 드리며”라는 부분이 바로 『대표본』이 인용한 “사연설석”(肆筵設席)이다. 잠언의 잔칫상은 단지 펼쳐놓은 것뿐이다. 그런데 『대표본』의 잔칫상은 풍성하다.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삶은 고기 조린 고기 구운 고기 머리고기뿐만 아니라 구운 간도 나눠 먹는다. 그리고 잠언에는 없는 노래와 북소리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대표본』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행위”(行葦)라는 시를 연상할 것이다. 풍성한 잔칫상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단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정성스러운 마음도 함께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대표본』은 “사연설석”이란 표현으로 잔치 광경을 더욱 실감나게 묘사한다. 『대표본』의 잠언은 이렇게 창조를 모티브로 삼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하여 창조란 단지 풍성한 잔치 그 이상이다. 김학주의 설명대로 본디 착한 심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³⁴⁾ 창조 모티브에 덧붙여 부각시키고 있다.

11. 『시경』에서 인용한 부분이 또 있다. 잠언 23장이다. 먼저 마소라 본문을 읽어보자.

누가 소리 지르는가? ‘아이구!’
 누가 소리 지르는가? ‘죽겠네!’
 누가 다투는가?
 누가 불평하는가?
 누가 상처 입는가, 까닭 없이?
 누구의 눈이 별건가?
 술에 찌들어 있는 자들
 술에 빠져 있는 자들³⁵⁾
 (잠언 23:29-31)

33) 金學主 역저,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 (서울: 명문당, 2002), 564-565.

34) 앞의 책 567.

35) (잠 23:30) לְמִאֲחָרִים עַל-הַיַּיִן לְבָאִים לְהִקָּר מִמֶּקֶד

술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 자제하라고 말하는 부분이다.³⁶⁾ 이 가운데 마지막 부분 “술에 찌들어 있는 자들, 술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부분을 『대표본』은 사뭇 다르게 읽는다.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
 누가 다툼을 일으키는가?
 누가 허물을 뒤집어쓰는가?
 몸이 상하는 것 누가 보는가?
 까닭 없이 그러하니
 오직 술을 탐하고
 술맛을 보지 않았는가?
 술을 진하게 섞는 자는 이와 같으리니-37)

“오직 술을 탐하고”는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술에 찌들어 있는 자들”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술맛을 보지 않았는가?”라는 뜻의 “상기부”(嘗旨否)는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데 집어넣은 부분이다. 이 표현은 『시경』의 “큰 밭”[甫田]이라는 시에 들어 있는 “상기부”(嘗其旨否)를 인용한 것이다. 이 표현 가운데 “기”(其)만 빼고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증손자가 오시자 농부의 부인이
 남쪽 밭으로 밥을 날라오니, 권농관은 몹시 기뻐하며
 좌우의 음식을 들어 맛이 어떤가 먹어보네
 벼 밭을 끝까지 다 매니 훌륭한데도 풍성하네
 증손자는 성낼 일 없고 농민은 째짜네³⁸⁾
 (詩經 甫田之什 甫田)

농사지는 뒤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신들과 조상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쟈밥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린 시이다.³⁹⁾ 김학주는 “상기부”를 “음식을 들어 맛이 어떤가 먹어보네”로 읽었다. 『시경』에

36) 이환진,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조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옵니다』(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64-65.

37) 誰遭禍患, 誰起爭競, 誰構怨尤, 誰目赤身傷, 出於無因, 惟耽麴蘖, 嘗旨否, 調劑甚厚者則若是

38) 김학주 역저, 『詩經』, 474. 曾孫來止, 以其婦子, 饁彼南畝, 田峻至喜, 攘其左右, 嘗其旨否, 禾易長畝, 終善且有, 曾孫不怒, 農夫克敏

39) 앞의 책 476.

서는 관리가 젓밥의 맛을 시험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대표본』은 금주하라는 문맥에서 술을 탐하는 이들은 맛있는 음식 또한 함께 맛보지 않느냐고 힐난한다. 그러니까 고전에 익숙했을 『대표본』의 독자들은 금주 권고 속에서 이렇게 젓밥의 맛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전혀 다른 문맥이지만 『대표본』의 번역가들은 잠언 속에서 『시경』을 읽어낸다.

12. 금주와 관련한 부분이 잠언에 또 나온다. 잠언 20장이다.

술은 비웃음만 사게 할 뿐
 독한 술은 시끌벅적 떠들게 할 뿐
 이 때문에 해매는 이들은 슬기롭지 못하다⁴⁰⁾
 (잠언 20:1)

『대표본』은 이렇게 읽는다.

청주와 진한 탁주를 지나치게 마시며 삶을 업신여기는 것
 또 떠들고 소리 지르며 술에 빠지는 것은
 무지가 심한 것이라⁴¹⁾

여기서 “떠들고 소리 지르며 술에 빠지는 것”[載號載呶, 沉湎於酒]이라는 부분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독한 술은 시끌벅적 떠들게 할 뿐”이라는 말을 옮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시경』에 나오는 표현이다.

손님들 술 취하여 소리치고 떠들고 하며
 음식 그릇 어지럽히고 비틀비틀 자주 춤추네
 이래서 술 취하면 자기 잘못도 모른다 했지
 관을 비스듬히 쓰고 더풀더풀 자주 춤추네
 술 취하여 바로 자리 뜬다면 서로가 다행한 일이지만
 술 취한 뒤에도 가지 않으면 덕을 망치는 짓이 된다네
 술이 매우 좋다는 것은 오직 예의를 잘 지킬 때일세
 (詩經 小雅 賓之初筵)

“손님 잔치”[賓之初筵]라고 부르는 이 시는 위(衛) 나라 때 대사례(大射禮)라는 의식을 거행하고 나서 벌인 잔치 광경을 그린 시로 알려져 있다. 잠

40) לֹץ הַיַּיִן הִמָּה שֶׁכָּר וְכָל־שִׁנְיָהּ בּוֹ לֹא יִחְכְּמוּ

41) 淸酒醇醪過飲, 生侮慢, 載號載呶, 沉湎於酒, 無智甚矣

언과 똑같이 절도 있게 술을 마시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시이다. 따라서 잠언과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잠언이 절도 있게 술을 마시라고 교훈하는 것과 『시경』의 이 시가 가르치는 모습은 똑같다. 잠언은 간결하다면 시경은 술 마시고 춤추고 떠드는 광경을 자세히 묘사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잠언의 교훈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는 작품이 『시경』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인용한 “손님 술 취하여 소리치고 떠들고”[載號載呶, 淸酒既載]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대표본』의 번역가들은 마소라 본문의 “시끝벽적 떠들고”라는 표현 속에서 『시경』의 “소리치고 떠들고”[載號載呶]라는 표현을 생각해 낸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청주”(淸酒)라는 말을 사용한다. 마소라 본문은 단지 “술”이나 “독한 술”이라고 말할 뿐이다. 『시경』의 이 시 속에 “청주”(淸酒)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 『대표본』을 펴낸 번역가들의 기억력이 놀라울 뿐이다.

13. 『시경』을 인용한 부분이 또 있다. 잠언 30장이다.

셋이 있다 내가 놀라는 것
 넷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
 하늘의 독수리의 길
 바위 위 뱀의 길
 바다 한 가운데 배의 길
 젊은 여자와 함께 하는 남자의 길⁴²⁾
 (잠언 30:19)

숫자 잠언 속에 들어 있는 격언이다. 놀라는 것 알 수 없는 것 서넛이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는 이 격언을 읽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마지막 코멘트 때문이다. 아무튼 『대표본』은 이렇게 읽는다.

찾을 수 없는 자취나 흔적
 서너 가지
 하늘로 날아오르는 때
 바위에서 파리를 트는 뱀
 바다 가운데 다니는 배
 아이가 처음 하는 사랑

42) דָּרָךְ הַנְּשֹׂר בַּשָּׁמַיִם דָּרָךְ נָהֵשׂ עָלַי צֹר דָּרָךְ אֲנִיָּה בְּלִבַּיִם וְדָרָךְ נָבָר בְּעֵלְמָה

그 흔적은 알 수 없으니⁴³⁾

마소라 본문에서 “하늘의 독수리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대표본』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매”[鷹飛戾天]라고 읽었다. 또는 “매가 하늘로 날아오른다”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위에서 인용한 『시경』의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鳶飛戾天]라는 부분을 약간 바꾼 것이다. “鳶”(연) 자를 “鷹”(응) 자로 바꾼 것뿐이다. “솔개”를 “매”로 바꾸어 읽은 것이다. 『시경』은 이렇다.

저 한산 기슭 바라보니 개암나무 호나무가 우거졌네
 점잖으신 군자님은 점잖게 녹을 받으시네
 산뜻한 옥돌 잔엔 황금 입이 가운데 붙었네
 점잖으신 군자님께 복과 녹이 내리네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 고기는 연못에 뛰고 있네
 점잖으신 군자님께서 어찌 인재를 잘 쓰지 않으리?⁴⁴⁾
 (詩經 大雅 旱麓)

주(周) 나라 임금의 덕을 기린 시이다.⁴⁵⁾ 임금의 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솔개는 하늘 위를 날고 고기는 연못에서 뛰고 있네”라는 표현이다. 『대표본』의 번역가들은 잠언의 “하늘에 있는 독수리의 길”이라는 표현을 읽고 이렇게 『시경』의 한가로운 장면을 연상한 듯하다. 물론 배경은 다르다. 잠언은 숫자 놀이를 통하여 난해한 세상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시경』을 인용한다.

14. 이 외에도 잠언 15장에는 “목유광명, 중심열역”(目有光明, 中心悅懌)이라는 말이 나온다(잠 15:30). “눈에는 밝은 빛이 있고 마음 중심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라고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눈의 빛은 마음의 즐거움이라 회소식은 뼈를 살찌운다(기름지게 한다)”라고⁴⁶⁾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눈[目]과 마음[心]과 뼈[骨]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봄”[目]과 “맘”[心]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말한다. 『대표본』은 『화엄경음의』(華嚴經音義)라는 문헌 속에 나오는 “心中和悅, 謂之豫”(심중화열 위지예)라는 표현, 곧 “마음속의 조화로운 기쁨을 일러

43) 其不可尋踪覓跡者, 三四不等, 鷹飛戾天, 蛇繞於盤, 舟行海中, 童蒙初媾, 其跡不可知

44) 김학주 역저, 『詩經』, 539.

45) 앞의 책 541.

46) מאור־עינים ישמה לב שמועה טובה תרשן־עצם

예(豫)라 한다”는 구절을 약간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예”(豫)라는 말은 “마음이 평화롭고 즐겁다”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다.⁴⁷⁾ 그런데 이 구절의 뒷부분 “이문가음 일신안예”(耳聞嘉音, 一身安豫)는 “귀로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몸이 편하고 즐거우니”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몸이 편하고 즐겁다”는 표현 속의 “즐겁다”를 바로 “예”(豫)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본』의 번역가들은 『화엄경음의』(華嚴經音義)라는 문헌의 의미를 이렇게 충분히 삭제해서 잠언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⁴⁸⁾

15. 이렇게 『대표본』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문 고전과 대화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611년에 나온 영어성경 제임스왕역(KJV)일 수 있다. 본문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성경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잠언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맹자』와 『중용』과 『시경』이다. 아시아 고전 문학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히브리어 성서가 생소했을 것이다. 『대표본』은 이들 고전 문학을 직접 인용하거나⁴⁹⁾ 약간 바꾸어서⁵⁰⁾ 또는 없는 것을 집어넣어⁵¹⁾ 대화한다. 그 결과 잠언 읽기는 더욱 풍요롭기만 하다.⁵²⁾ 또 아시아 고전문학을 읽어보고 싶도록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⁵³⁾

잠언의 현자들은 이렇게 『대표본』 속에서 맹자가 되기도 하고 『중용』의 현자가 되기도 하며 『시경』의 시인이 되기도 한다. 두 문화가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서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본』은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抱一)

47) 동아 1715.

48) 또한 잠언 22장에는 “무학영독”(毋虐癯獨)이라는 말이 나온다(잠 22:22). “홀로 있어 외로운 이를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깃눌려지는 이를 깃누르지 말라 법정에서-”를 옮긴 부분이다. 이 표현은 『서경』(書經)의 “무학영독”(無虐癯獨)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단지 첫 글자 “無”를 “毋”로 바꾼 것뿐이다.

그리고 잠언 23장에는 “도칠”(饕餮)이라는 짐승이 등장한다(잠 23:2, 21). 이 짐승은 상상속의 신화적 짐승으로 무엇이든 잡아먹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칼”이라는 말을 이렇게 상상속의 짐승으로 바꾸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49) 잠언 9:1; 20:1; 23:31; 27:27.

50) 잠언 22:22; 23:23; 30:19.

51) 잠언 4:22; 7:4.

52) 잠언 4:22; 7:4; 9:1; 20:1.

53) 잠언 15:30; 23:2; 23:21.

<주제어>(Keywords)

잠언, 한문성경 대표본(1854), 중국 고전, 맹자(孟子), 중용(中庸), 시경(詩經), 동서 문화의 성서적 대화.

Proverbs,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Chinese Bible (1854), Chinese classics, The Works of Mencius, The Doctrine of the Mean, The Book of Odes. A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through the Bible.

(투고 일자: 2015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동휘 역해, 『맹자』, 서울: (주)신원문화사, 2006.
金時俊 譯解, 『大學·中庸』, 서울: 惠園出版社, 1988.
金學主 譯著, 『新完譯 詩經』, 改訂增補版, 서울: 명문당, 2002.
民衆書林 編輯局 編, 『漢韓大字典』, 全面改訂·增補版, 서울: 民衆書林(민중서림), 1997.
선귀웨이, 『근대 중일 어휘교류사 - 신한자어의 생성과 수용』, 이한섭 외 역,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쉬슈양슈양(許双双), “중문 화합본(1919)의 번역 특징”, 석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이동환 역해, 『중용』, 서울: 현암사, 2008.
이환진, “나 야훼는 ...”, 『샘』 39 (2014. 9.), 75-82.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의 「북경관화역 구약」 (1875) - 시편 1편을 중심으로”, 『神學과 世界』 76 (2013), 6-37.
이환진, 『레위기 II』,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3-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이환진, 『악을 심고 잘 될 리 없죠 선을 심으면 참된 사랑이 돌아옵니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 전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0 (2012. 4.), 25-44.
이환진, “서평 논문 - 창문을 연 번역(Translation That Opens the Window)”, 『성경원문연구』 29 (2011. 10.), 179-205.
이환진, 『구약성서 속에서 노닐다』,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1.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주시오』, 민영진박사

- 회갑기념 제2권,王大일 엮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 전무용, “매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1)”, 『창조문예』 131 (2008. 1.), 93-105.
- 전무용, “매킨타이어 목사님의 1880년 논문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소개합니다 (2)”, 『창조문예』 132 (2008. 1.), 161-169.
- 游斌, “王韬, 中文圣经翻译及其解释学策略”, 『圣经文学研究』 第一辑 (2007年), 348-368.
- 黄イエレム, “「上帝」か「神」か. 19世紀プロテスタント聖書の漢譯過程にみる用語論争の歴史的考察”, 立教大學大學院, 修士論文, 2013年度.
- Holy Bible. Common English Bible(CEB). a fresh translation to touch the heart and mind.* Nashville: www.CommonEnglishBible.com, 2011.
- Legge, James, *The Notions of the Chinese Concerning God and Spirits*, Hongkong: Hongkong Register, 1852.
- Peterson, Eugene. trans., *The Message: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Colorado Springs, Colorado: NavPress, 2002. (메시지)
- The Holy Bible Conta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Nashville: Thomas Nelson, 1977. (원출판년도 1611) (제임스왕역)
- The Jerusalem Bible. The Holy Scriptures*, The English text revised and edited by Harold Fisch. Jerusalem, Israel: Koren Publishers, 1992. (Koren)

<Abstract>

Chinese Classics in the Book of Proverbs of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1854)

Hwan-Jin Yi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Chinese Bible had heavily influenced not only the later Chinese Bible versions but also the Japanese and Korean Bible translations. It is true especially in terms of their wordings and expressions. Therefore,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can be said to be the matrix of East Asian Bibles.

In addition to this, the Delegates' Version shows unique characteristics when we think of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in Asia. Because it has a lot of direct quotations from Chinese classics such as the *Works of Mencius*, the *Doctrine of Mean*, and the *Book of Odes*, etc. For example, Proverbs 4:22 and 7:4 have 拳拳服膺 (quán-quán-fǔ-yīng), which comes from the *Doctrine of Mean*. Proverbs 27:27 also borrows the expression like 綽然有餘 (chuò-rán-yǒu-yú) from the *Works of Mencius*. Furthermore, two expressions from the *Book of Odes* are quoted in Proverbs 9:2 (肆筵設席, sì-yàn-shè-xí) and Proverbs 20:1 (載號載呶, zài-háo-zài-náo).

Unlike these quotations from the Chinese classics, Proverbs 23:31 adds 嘗旨否 (dāng-zhǐ-fǒu) to the Chinese translation. This expression is a quotation of 嘗其旨否 (dāng-qí-zhǐ-fǒu) from the *Book of Odes* with the word, 其 (qí) omitted. In Proverbs 30:19, 鷹飛戾天 (yīng-fēi-lì-tiān) is quoted from the *Book of Odes* too after slight alteration of 鳶飛戾天 (yuān-fēi-lì-tiān).

As such,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Chinese Bible on the one hand quotes some expressions directly from the Chinese classics (Prov. 9:1, 20:1, 23:31, 27:27). On the other hand, it borrows some expressions from the Chinese classics and makes slight alterations (Prov. 22:22, 23:23, 30:19). What is more, some expressions from the Chinese classics are added to the translated text (Prov. 4:22, 7:4).

It seems that the Chinese Delegates' Version tried to have an inter-cultural dialogue with the Chinese classics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translation technique mentioned above. It presumably results to enrich readings of the Bible in Asian cultural soil. Therefore, we can learn an Asian way of reading the Bible from the Delegates' Version of the Chinese Bible.